

제목-장례식파티

등장인물

이수일 (남/38)

암 환자. 인테리어 사업가. 사실혼관계 아내가 있고 자식은 없다. 그러나 전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이 있다.

이수정 (여/37)

수일의 동생.

꾸미는 거 좋아하고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다.

감성적이다.

이수연 (여/37)

수일의 동생

이성적이다.

김연미 (여/35)

수일의 사실혼 관계 아내.

내강외유로 굵고 짧게 할 말은 하는 타입이다.

정해린 (여/33)

수일의 전 아내. 슬하에 1녀가 있다.

자기주장이 강한 이기적인 타입이다.

이이진 (여/5)

수일과 해린의 딸.

줄거리

-수일은 쾌활한 사람이다. 자신의 임종 전 지인들과의 파티자리를 가지며 임종을 준비하고 싶었던 수일은 장례식파티를 부탁한다. 전 아내와 자식이 찾아와 자신들을 본가족으로 세워 달라고 요구한다. 전아내와 자식, 현아내의 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한 단체석 예약이 불가하다. 임종은 다가오는데...

시나리오

S#1.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거실 (실내/오후)

오후 4시경. 한창 햇빛이 비추는 시간이지만, 오늘따라 수일네 거실은 햇빛 하나 없이 시계 초침소리만 들린다.

수일은 덩그러니 멍한 채로 식탁 의자에 앉아있다.
곧 이어 들어오는 연미, 장 봐 온 듯 하다.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한 손엔 굴이 들려있다.

연미

어 오빠! 와 있었네? 웬일이야 이렇게 일찍 와있고?? 서프라이즈 해주려 했는데.
장바구니를 식탁에 올린다.

수일

연미야...

연미

잠시만~

(계속 장바구니 속 물품들을 정리한다, 말할 틈이 생기지 않는다)

수일

나 암이래.

연미

뭐...? 왜 그래 장난하지마...

무거운 얼굴의 수일 뺨히 연미를 본다

장바구니가 연미의 손에서 툭-떨어진다. 정적이 흐르는 집안.

.

연미는 수정에게 전화를 한다.

수정은 바로 전화를 받는다.

연미

수정씨...

수정

언니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연미

... 수정씨.

수정

(침 삼키고) 네..?

연미

(한숨을 크게 한 번 쉬고:) 수일오빠.. 암이래요.

수정, 눈시울이 붉어진다. ex)정은지

black out

S#2. 벤치 (실외/이른 아침)

눈이 빨간 수정 수연.

아침 일찍 병문안을 가려고 정신이 없었는지 잠옷 채로 후드집업(겉옷) 하나 걸치고 나온 차림새이다.

수정

흑흑....흑..

오빠 괜찮겠지?

수정은 차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쳐도 아랑곳 않고 감정을 표현한다.

수연

(담담히 자신의 눈물을 닦으며)언니. 괜찮을 거야. 5년 동안 전이되지 않으면 완치야.

항암치료 잘 받고 잘 먹고 요양하면 좋아질 거고 ..

좋은 약도 많으니까

S#3. 병실 (실내/밤)

수일, 힘겹게 항암치료를 마치고 병실에 누워있다. 기운이 짝 빠진 모습.

연미가 퇴근을 하고 돌아온다. 항암치료하느라 진이 다 빠진 수일 앞에서 투정을 부린다.

믹스커피 봉지와 종이컵을 들고오는 연미.

연미

아 그 경원이네? 거기 아저씨도 성격 참 그렇더라. 돈은 별로 안 내고 싶어하면서 바라는 것만 많고. 인테리어 봐주러 그 집까지 갔는데 커피 한 잔을 안 타주는 거 있지? 커피가루에 뜨거운 물을 붓고 휘휘 젓는다.

수일

...어.. 고생했네..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연미

오빠 믿고 오던 사람들이 반 이상인데. 이제 오빠 없어서 어떡해?

손님 다 끊기는 거 아냐? 오빠 그러지 말구. 와서 카운터에만 앉아 있어주면 안 돼?
(연미에게 티 나지 않게 작은 한숨을 쉰다.)

수일

....알았어..

s#3. 본관 벽. 벽 보며 인테리어를 얘기하는 장면 (유비처럼 배경음악과 함께)

S#4. 병실 (실내/낮)

고개를 갸웃거리는 의사.

의사

음... 절대 안정을 취하시라고 권했는데.. 혹시 무리가 갈 만한 일을 하셨을까요?
쿵 떨어지는 듯한 표정 (cu)

수일

(bs) (멋쩍게 웃으며) 글..쎄요. 가벼운 일을 좀 하긴 했는데..

의사는 수일에게 전이가 됐고 상태가 악화돼서 3개월 남짓이 남아있다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한다.

S#5. 병실 (실내/낮)

수일, 수정에게 전화를 건다.

성격 급한 수정은 벨소리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무조건 받는다.

하지만 무슨 말을 들을까 무서워 계속 망설이다가 계속 울리는 전화를 끊기기 직전, 받는다.

수일

(머뭇거리며) 어 수정이니?- 오빠야. 다름이 아니라 나, 장례식 파티를 하고 싶어서...

수정

(어~수정이니?에서 안도하는 한숨) 장례식파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완치될 생각은 안 하고! (흠쩍)

수일은 하얀 벽을 멍하니 5초 쳐다본다.

수일

(멍한 표정으로) 나... 전이 됐다. 얼마 안 남았다더라구.

수정

(눈시울이 붉어지며) 알..았어 오빠 우리 하자, 그거!

S#6. 수정네 거실 (실내/낮)

수연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며) 참. 이런 일로 연락하는 게 마음이 싱숭생숭하네.

수정

나도... 그래도 만나 추억담도 얘기하고 정리하고 가는 게 낫지

마무리도 못 하고 가면.. 더 맘 아플 거야.

마저 연락을 돌린 자매.

이번엔 장소를 대관한다.

수연

내가 장소 대관할게. 12명 정도 되는거지?

수정

응. 넉넉히 잡아서 15명씩 예약하면 될 것 같아.

수연

알겠어. 내가 전화해볼게.

수연, 전화해보지만 코로나19 거리두기로 대관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는다.

수연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대관 자체가 안되네..

수정

음... 아무래도 야외로 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가족들끼리만 하는게 좋겠어.

그 때, 수정의 폰이 울린다.

수연

뭐야?

수정

어... 해린언니네. 내가 문자 보냈거든.

수연

(뜨악한 표정을 지으며) 뭐?? 해린언니한테 보내면 어떡해! 이제 부인도 아닌데.

수정

그건 그렇지만.. 이진이가 있잖아.

수연

... 그건 그렇지..

S#7. 병원 휴게공원 (실외/낮)

저 멀리 지평선 끝엔 뭐가 있을까-하고 공상 하고 있는 수일. 요즘 부쩍 공상이 늘었다.
해린이 또각또각 구두소리를 내며 수일에게로 온다.

해린

잘 지냈어?

수일

응..당연하지ㅋㅋㅋ쿨룩쿨룩

해린

잘 지내긴 뭘! (울컥) (호흡 가다듬고)

넌 어쩔, 이 상황까지도 해맑냐. 참 안 변해.

수일

ㅋㅋㅋ 난 사람들이 행복한게 그렇게 좋더라고. 나 때문에 행복하면 더 좋고.

해린

(피식 웃으며) 으휴 못 살아. 항상 손해보고 살면서도 저러지. 저 똥고집.

수일

그래서, 할 말이 뭐야?

해린

아, 장례식파티에 본 가족으로 우리를 세워 달라고.

수일

(표정이 굳어지며) 뭐? 난 새 가정을 이뤘어.. 이럼 안 되지.

해린

가정.. 좋지. 근데 너네, 혼인신고 안 했잖아.

수일

(중얼거리며) 그건 또 어디서 들은 거야.

해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사이엔 이진이가 있잖아. 너 이진이를 손님 석에 앉힐 생각이니?

수일

아 이진이는! (정적) 하... 생각 해볼게.

해린

그래, 이진이랑 곧 병문안 갈게.

해린은 구두소리를 내며 왔던 길 대로 돌아간다.

S#8. 병원 앞 카페(실내/낮)

연미

뭐라구요? 그건 아니죠.

해린

뭐가 아닌데요? 오빠랑 나 사이엔 딸도 있어요. 가족, 지인들 모이는 자리인데,
혼인신고도 안 한 당신보다야 우리가 낯지 않겠어요?

연미

(기가 찬 듯) 말이 지나치시네요? 아무리 자식이 있고, 저랑 혼인신고를 안 했다한들.
지금 오빠 곁에 있는 사람은 저예요. 이 자리엔 제가 있는게 맞구요
정 그러면 따로 만나세요 오빠랑.

연미는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떨떠름하게 해린을 3초가량 쳐다보는데, 전화가 오고 계속되는 진동소리에 두 사람 모두 연미의 핸드폰에 시선을 둔다. 발신자가 수일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연미는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네요' 하며 큰 보폭으로 카페 밖으로 나간다.

S#9. 병원 앞 카페(실내/저녁)

해린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목이 타는 표정으로)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폰을 든다.

전화 거는 해린

수정아 나 00카페인데 잠깐 나올 수 있니?

짜증나.. 5분이면 돼.

숨 차게 들어오는 수정.

수정

왜 언니 무슨 일 있어요?

해린

아니 연미 그 사람이 자기가 본 가족으로 서겠다는 거야.
사실혼관계 주제에. 내가 이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도 했고 우리 둘 사이엔 자식도 있는데,
나랑 이진이가 있어야 맞지 않겠니?

수정

(난처한 듯) 음... 오빠한테는 언니 뜻 전해볼게요. 그런데 언니.. 제가 생각하기에..ㄷ

해린

나랑 이진이가 맞지?!

해린, 수정의 말을 끊고 나간다.

S#10. 놀이터 앞 벤치? 또는 (실내/오후)

해린과 이진, 들어온다.

또각또각 울려퍼지는 해린의 구두소리.

해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불렀는데?

수일

이진이 잠깐 저어기 가있을래? 아빠 엄마 얘기할게 있어서. ㅎㅎ

이진

응! 아빠!

이진,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뛰어들어간다.

해린, 그 모습을 가만히 쳐다본다.

수일

해린아.

해린

왜

수일

날 이렇게 생각해주어 고마워. 이진이를 낳아줘서도 고맙고.

해린

뭐야 오글거리게.

수일

근데 나, 고민 많이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보도 장례식파티에는 연미씨랑 있는게 맞는 것
같아. 아니, 맞아.

우리는 따로 밥 먹자 부탁이야.

해린

어떻게..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한테 이진이라도 있잖아.

수일

그래 이진이라도 있지. 그런데 이진이 있다고 해서 이혼한 사이인 우리가 있는 게 더 이상하지..

제발 부탁이야. 다시 한 번 생각해줘. 쿨룩쿨룩

해린

(아파하는 수일을 보니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든다) 알았어.

수일

??!

해린

알아.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 이혼을 했고 오빠를 잊고 살았어. 아이도 있고해서 당연히 우리 자리일 줄 알았어..

수일

...

해린

(마주보다가 앞을 바라보며) 미안.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수일

난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줘서 고마운 걸.

해린

착해빠졌다니까 너. 먼저 갈게. 그래도 나중에 밥 한 끼 먹자는 약속, 지켜.
이진이 기다리니까

수일

응, 당연하지(해린을 향해 싱긋- 웃는다)

도망치듯 빠져나오는 해린

s#11. 수정네 집 (실내/오후)

수연

오빠 하고 전화했어. 야외정원 괜찮대.

수정

다행이네, 거기서 준비하면 되겠다.

있지, 우리 오빠랑 연미연니 결혼식도 준비해주면 어떨까?

수연

응? 결혼식??

수정

두 사람 혼인신고도 결혼식도 못 했잖아.

너도 알다시피 오빠 로망 중 하나가 야외정원에서 결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수연

맞아 그랬지.. 좋아 우리 해주자.

S#12. 야외정원 (실외/낮)

수일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사진첩을 활용한 일대기.

잔잔하게 흘러나오던 음악이 끝나고 결혼행진곡이 페이드인 된다.

딴 딴 딴 딴-

이슨 쉬 러블리~ 배경음악이 나오며 연미가 수일에게 눈을 맞추며 걸어 들어온다.

너무 놀란 수일, 연미를 보며 행복하고도 환한 미소를 짓는다.

감동받은 표정 C.U

연미

(프러포즈 자세를 취하며)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수일

이런... 프러포즈를 당해버렸네.. 네 당연하죠..

S#13. 식당 (실내/낮)

수일, 해린, 이진 밥을 먹는다.

아주 행복하고 평안하게.

마치 이 시간이 내일 멈춰도 여한이 없다는 듯이.

수일

이진이 맛있었어?

이진

응!

수일

이진아 아빠가 멀리 여행을 갈 거야..

우리 이진이 아빠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지?

이진

아빠 어디 가? 나 심심한데. 우리 집 와서 동화책 읽어주기로 했잖아~

수일, 해린 울컥한다.

해린

응응 아빠 나중에.. 나~아중에 읽어주실 거야.

(이진을 바라보며) 오늘 아빠하고 시간 행복했지? 오래 기억해야 돼.

이제 아빠한테 인사하자.

이진

(수일의 품에 고풍 안기며) 아빠 잘 가.

S#14. 병실 (실내/오전)

힘들어 보이지만 무척 행복해보이는 표정..

혹 안 좋아질 수 있다며 무리하면 안 된다 신신당부하던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딱 맞았다.

의사

음.. 아무래도 하루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
가족분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 좋을텐데요..

연미 수일의 폰을 통해 수정과 해린에게 전화한다.

연미->수정

어 수정씨 시간이 얼마(없대요. 마지막 인사하라고 들었어요.. 얼른 오세요)

연미 ->해린

(해린씨 오빠가.. 시간이 얼마) 없대요. 마지막 인사하라고 들었어요.. 얼른 오세요

S#15. 병실 (실내/오후)

기침과 배를 부여잡고 너무 아파 인상을 찌푸린다.

으으...하는 신음 소리를 낸다.

연미에게 '.... 나 대신 .. 읽어줘....'하고 힘겹게 말하고 마르는 입에 침을 바른다.

연미

오빠 물 좀 줄까?

수일

(도리도리)

그 때 수정 수연 자매가 등장하고,

수정, 수연

오빠...

자매는 수일에게 다가가서 손을 매만지며 옛날 이야기를 한다.

수정

오빠 기억 나?

그 왜 학생 때 놀지 못한 게 한이라면서 대학교 가자마자
맨날 새벽까지 술 마시고 다녔잖아(웃으며)

수연

아 기억난다 엄마 속 엄청 썩었지 오빠가.

해린과 이진도 왔다.

의사

다들 와주셨네요. 환자 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가족들 곁에서 편안히 떠날 수 있어서도 다행이구요.

우울하고 애처로운 마지막이 아닌, 삶을 추억하며 웃어주었으면 좋겠다던 수일의 바람대로 울지 않고 함께해서 웃고 즐거웠던 추억들을 (눈에 눈물이 맺힌 채/눈시울이 붉어진 채) 이야기하는 가족들.

수일은 수정, 수연에게 고마웠다, 연미와 이진, 해린에게 사랑한다고 하며 이진이의 손을 꼭 잡는다.

이진 아빠를 부르며 운다.

해린, 눈을 질끈 감고 울음을 참는다.

수연

오빠 그 동안 수고했어. 이제 아프지 않고 편안했으면 좋겠어. 고마웠어.

수일, 눈물이 한 방울 옆으로 흘러내린다.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수일은 사망했다.

연미가 선반에 있던 편지를 가져온다.

연미

오빠가 읽어달라던 편지에요..

(na) '안녕, 나 수일.

친애하는 나의 가족들. 다들 울고 있는 거 아니지?

울지 마.

연미씨 이진이 이진엄마 그리고 우리 수정 수연이까지.

내 마지막을 이렇게 빛 내주어 너무 고마워.

내 뒤통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오래 오래 살아.

내가 아플 때 다들 너무 신경 쓰이게 한 것 같아 미안하네.

그동안 고마웠어. 나 먼저 가 있을테니까 다들 천천히 와! 안 그럼 나한테 호운 나~ ㅋㅋ

그럼 안녕.

-수일

해린은 이진을 끌어안는다.

연미는 그런 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는다.

수정과 수연은 그런 연미를 바라본다.

수정과 수연은 눈을 마주치고 애써 웃는다.

END.